

# 새 생명

## The New Life

로마서 6:4-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4월 15일 설교

<sup>4</sup>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sup>5</sup>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sup>6</sup>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sup>7</sup>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 부활신앙이 핵심

금요일 저녁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서도 핵심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 2:9-11; 딤후 2:11). 이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째 조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롬 10:9-10).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거라든지 심지어 물 위로 걸어가신 것도 믿으려면 억지로라도 믿어 보겠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걸 정말 말이 안 된다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부활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깬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님을 하도 그리워하다 보니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또 예수가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분이 주신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들 마음에 남았으니 그게 곧 예수가 부활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댁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예수의 정신이 곧 성령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현대인이 옛날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옛날 사람한테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요. 현대인이라고 옛날 사람보다 더 독특한 거 아닙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 책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이천 사백 년 전 사람인데 생각이 얼마나 깊고 치밀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무렵이니까 벌써 이 천 년 전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활만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부활은 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부활을 빼고 예수를 믿겠다는 건 한 마디로 성경도 믿고 내 머리도 믿겠다는 거지요. 양다리지요? 양다리는 결국 한 다리입니다. 내 머리만 믿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는 부활이 있긴 있는데 그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 거듭남과 부활

쉽게 이야기하면 거듭나는 게 곧 부활이다 하는 말이지요.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딤후 2:18).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부활이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한테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은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일 필요가 없고, 우리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니, 결국 주 예수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은 거지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인했으니 심각합니다.

사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런 논리에 넘어갈 만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는 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만 제대로 격식을 갖추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라 했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물에서 나옵니다.

살았습니다. 생명이지요?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곧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니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그게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꼭 몸이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 대신 오셨다는 말이다 해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거듭남을 한자로 중생이라 합니다. 다시 사는 건 부활이라 하지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다시 난다, 다시 산다는 말인데 부활도 똑같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더 있습니다. 재생, 재할 이런 것도 말뜻은 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쓰임새는 전혀 다르지만 문자 그대로의 뜻은 비슷합니다. 성경 원문도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팔링게네시스”인데 말 그대로 다시 생긴다는 말입니다 (딤후 3:5). 다시 사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말은 위로 일어난다는 말도 되고 다시 일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성경이 거듭난다, 부활한다 할 때 다른 말도 쓰는데 부활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중생을 가리키는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 새로운 삶

부활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몸을 그대로 다시 찾는 건 아닙니다. 곡식 한 알을 심으면 그건 썩어 없어지고 대신 푸짐한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말고는 아직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 열매는 거두었는데 둘째 열매는 아직 못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그 몸 그대로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아닙니다. 참 부활 곧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부활이 오기 전에도 부활한 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하고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은 부활 이후의 삶, 곧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가진 몸은 아직 자연에 속한 몸, 부모에게서 받은 혼의 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혼의 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온 몸이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혼에 속한 우리 몸이, 이 썩을 몸이, 영에 속한 몸처럼, 썩지 않을 부활 이후의 몸처럼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혼의 몸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의 몸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몸을 다스리시도록 하면 됩니다. 혼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고 길게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흠으로 돌아야 할 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썩을 몸이니 마구 굴려도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가르친 사람들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썩을 몸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갖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이 몸까지도 새 몸처럼,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몸처럼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거듭난 삶, 곧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됩니까? 죄의 도구로 쓰이던 몸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두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3).

## 자유로운 삶

몸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지가 안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다스리는 힘은 다릅니다. 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주도한다는 말이면서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시를 받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엡 2:2). 죄의 노예가 된 상태요, 자유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죽어서 얻었습니다. 혼의 몸은 살아야 노예니까 아예 죽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산다는 게 됩니까? 산다는 건 자유입니다. 얽매인 삶, 노예의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고 먹고 숨도 쉬지만 그건 혼적인 삶이라 했습니다. 동물도 그런 식으로는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에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뉴햄프셔 차 번호판 보셨지요? LIVE FREE OR DIE, 자유롭게 살거나 죽겠다.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죽느니만 못하다는 거지요. 뉴햄프셔 주 구호입니다. 그 주 출신으로 독립전쟁 때 싸웠던 존 스타아크 (John Stark)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LIVE FREE OR DIE; DEATH IS NOT THE WORST OF EVILS”이라고 썼습니다. 죽음이 가장 심한 악, 최악의 악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잃는 게 죽음보다 더 큰 악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자유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하고 뜻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 역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살면 노예니까 죽었습니다. 죽으니 자유가 오고 새 생명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근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자유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유이면서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던 혼의 몸,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유가 곧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몸은 아직 옛 몸인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옛 몸을 영의 몸처럼 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우리가 다 백 퍼센트 완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삶, 자유로운 삶, 제대로 사는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거둬낸 사람은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겁니다.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겠지만 지금부터 그 영광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옛 생명 새 생명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세상을 떠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을 했으니 좋은 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잘못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엉터리로 갖다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마음대로 끊는 것은 살인이지요.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끊는 목숨은 혼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때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십 장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저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내던졌으니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끊은 생명은 혼의 목숨이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곧 새 생명은 아닙니다. 자살은 물론 큰 죄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이 밋다고 성경까지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의 목숨도 귀하지만 영의 목숨에는 비길 바가 못 됩니다. 혼의 목숨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도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도 다 따지고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고 또 스스로도 죽음의 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죽음의 길을 갔다고 누가 비방합니까? 정말 귀한 일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고 오히려 존경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혼에 속한 이 몸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이상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 곧 혼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순교자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몇몇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혼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순교자들도 죄를 지은 거겠지요? 목숨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다면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혼의 목숨은 얼마 못 살고 결국 없어질 목숨입니다. 대신 영의 목숨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귀한 줄 알기에 우리는 혼의 목숨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히브리서 십일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 11:35).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더니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말을 쓴 걸 보아서 그 보다는 혼의 목숨을 과감하게 버리고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활이 더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혼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형조차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몸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혼의 몸이 영의 몸처럼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혼의 몸을 주관하여 영의 몸처럼 쓸 수 있게 되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암송했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리라” (롬 8:11). 성령이 안 계시면 부활도 기대 못 합니다.

## 새 봄의 새 생명

봄은 생명을 생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게 죽은 듯 보입니다. 땅도 얼어 있고 나무도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크로커스가 땅에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조금 있으면 수선화도 피고 개나리도 핍니다. 그러면 아름드리나무에도 꽃이 피고 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야, 살아 있었구나! 겨우 내 꿈쩍도 않고 있기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임이지요? 꽃도 피지만 새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인다고 산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티 에스 엘리엇가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봄이 오면 자연은 저렇게 꽃도 피우고 잎도 내고 새 소리도 내면서 살아 움직이는데 그걸 바라보는 인간은 생명을 누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겁니다. 나는 반쯤 죽은 구근인데 봄비가 와 자꾸 건드립니다. 얼른 싹을 내라고 채근을 합니다. 그런데 싹을 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차라리 모든 게 눈에 덮여 있던 겨울이 좋았습니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 주었다!

봄이 오면 우리도 움츠렸던 몸을 펴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왜 잔인하다 했습니까? 밥 먹고 숨 싹이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생식활동도 하지만, 그런 건 동물도 합니다. 사람은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에 빠져 있으니 그 뜻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잃고 그래서 몸도 그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죄 짓는 도구만 되다 보니 사는 보람도 없고 그저 허무합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뜻을 찾아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건 모릅니다. 더 가져 보고 더 높이 올라가 보고 더 공부도 해 보고 이것저것 이루어 보기도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월이면 괴로운 겁니다.

봄은 삼월에 오고 오월에 오는데 특히 사월이 잔인한 까닭은 사월에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지금 혼의 목숨에 갇혀 이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저기서는 살았다고, 이제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기뻐 뛰니, 그것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월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엇가 지은 시 <황무지>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마디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전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새 생명을 즐기자

이 잔인한 사월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를 높이는 게 첫째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월의 감사의 때요 찬양의 달입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생명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사월은 그 어느 달보다 생명으로 충만한 달입니다. 꽃도 즐기고 새 싹도 즐기고 겨우내 못 친 테니스도 마음껏 치고 몸과 마음도 원기를 얻어 활기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셨는데 아직도 겨울이 좋다 하면서 봄을 못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오는 봄은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러니 여름 장미도 좋고 가을 국화도 좋지만 봄 꽃, 봄 잎은 우리하고 많이 닮았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많이 즐겨 주는 게 도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연도 즐기고 혼에 속한 몸도 잘 챙겨야 됩니다. 자연이나 우리 몸이나 다 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온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수 있고 우리 혼의 몸도 영의 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자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인간관계, 이 모든 걸 새 생명 가운데 영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삶을 영원히 썩지 않을 삶으로 바꾸어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새 생명의 삶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은커녕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자연 가운데 또 내 몸을 통해 새 생명을 마음껏 즐기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영의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곧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부활의 생명을 미리

보여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썩을 몸이지만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과 여러 가지로 비슷해졌기 때문에,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 성령으로 살자

감사, 찬송하고, 즐기고,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됩니까? 죽은 다음 얻은 생명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건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부활 이후 누릴 참 자유와 기쁨도 미리 맛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주 예수와 함께 부활할 그 날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생명의 달 사월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이 생명이 흘러 넘쳐 사월의 잔인함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 우리가 얻게 된 생명과 앞으로 맛보게 될 부활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